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부부관계 변화

Relationship Changes of Married Couples after Disaster

정순돌* · 김종희** · 김고은***
 Chung, Soon Dool · Kim, Jong Hee · Kim, Go 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changes of married couples after the disaster occurred in 2007 in South Korea and to seek solutions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by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ng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186 married couples either who were victims of Typhoon in Koheung and Jeju island in September or who have suffered from oil spill in Taehan in December, 2007. The result showed that 51 respondents (27.4%) reported that their relationship had been changed negatively, compared to a total of 37 respondents (19.9%) were changed in a positive way. Negative change occurred approximately 2.5 times higher than positive change. The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wer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subjective health status, degree of anxiety or depression symptom, state of recovery, and religion. Based on the results, solutions to prevent marital relationship from deteriorating after going through disaster and implications of social work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ere discussed.

Key words : Disaster,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physical and emotional state, relationship with others, disaster-related characteristics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이후 부부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재난사건 이후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경험한 전라남도 고흥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해 12월, 유조선 충돌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지역 피해주민 중 기혼자 186명이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 186명 중 부부관계가 변화한 경우는 51명(27.4%)이었으며, 이 중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자는 37명(19.9%)으로 부부관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14명(7.5%)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았다. 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중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향상시키는데 모두 유의미했다. 이 밖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의 정서증상, 복귀정도, 그리고 종교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의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핵심용어 : 재난, 부부관계, 신체적 · 정서적 상태, 타인과의 관계, 재난관련 특성

1. 서 론

2011년 일본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에서는 '지진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1). 실제로 재난을 당한 부부들의 이혼상담건수가 20~30% 늘어났는데 대형 재난을 겪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여러 요인들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개인과 가

족의 적응과 삶에 대한 도전이 된다(Rodgers, 2004).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재난이 닥쳤을 때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Kristi, 2007).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자연재난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利己)가 유발한 인적재난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재난은 개인의 삶에 혼란을 가져오고, 불균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족체계에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때 일차적 인간관계인 부부관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sdchung@ewha.ac.kr,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가족관계는 주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 내 하위체계인 부부의 역할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 결혼 직후의 부부에게는 원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며, 이후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녀의 독립지원과 원가족의 부모를 수발하는 역할까지 함께 책임지게 된다. 자녀가 떠나가는 단계를 거쳐 노년기로 넘어가게 되기까지 부부는 모든 과정을 상호작용하며 조율해 나가게 된다. 이는 가족내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적이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가족생활단계에서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들이 갖는, 특히 가족의 삶에 중심에 서 있는 부부의 스트레스는 무엇보다 커질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드러나는 심리사회적 변화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과 1980년대의 경제위기, 그리고 20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김영란, 2009; Vinokur 등, 1996), 1998년 우리나라의 IMF 사건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이나 배우자의 가출 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Kwon 등, 2003).

특히 재난과 같이 생활단계와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하는 큰 사건의 경험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odgers, 2004; Cohan 등, 2002). 이러한 재난은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등 모든 분야에서 돌발 사건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는 사회 제반 가치와 규범 및 문화의 변화(Gortner 등, 2003)뿐 아니라 가족 내 부부 역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 하위체계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관련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재난 후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신체나 정신건강 상의 문제(Chung 등, 2010; 최남희 등, 2007), 특히 재난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대수 지하철 참사나 미국의 9.11 테러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부부관계와 관련된 소수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이혼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Cohan 등, 2002; Morrow 등, 1996; Aguirre, 1980)와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하는 연구결과(Rodgers, 2004; Davis 등, 1999; Taylor, 1977)로 양분된다. 재난 후 가족이 겪는 문제 중 부부가 갖게 되는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개인-개인 간의 복지를 위협받게 되는 중대한 위기(crisis)사건(정순돌, 2009)으로서의 재난경험이 부부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재난을 경험한 부부들의 관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 지역,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유조선의 충돌로 기름이 유출된 충청남도 태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이나 인명 등의 피해를 입은 기혼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마을 이장의 허가를 얻은 뒤 지역주민들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1:1 인터뷰 조사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38명의 기혼 응답자 자료 중에서 주요 독립변수에 미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86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설문조사 도구

2.2.1 종속변수 : 부부관계 변화

부부관계 변화는 ‘재난을 경험한 후의 부부관계변화’의 단 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재난 이후 부부관계가 ‘나빠졌다(1)’, ‘변화없다(2)’, ‘좋아졌다(3)’로 구분하였다.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신체적·정서적 상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체적·정서적 상태에서는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재난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정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가 자각한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스트레스는 ‘재난으로 인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알코올 정도는 Mayfield 등(1974)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중독 감별 척도(CAGE: 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를 활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대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증상은 Colarossi 등(2005)에 의해 개발된 ‘우울과 불안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상 8 문항, 불안증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신뢰도 Chronbach's $\alpha = .90$ 이었다.

둘째, 재난으로 인한 타인과의 관계는 중앙재난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 항목을 참조해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변화를 자녀와 이웃, 친척으로 구분하였고, 재난 이후에 각 관계가 ‘나빠졌다(1)’, ‘변화없다(2)’, ‘좋아졌다(3)’로 측정하도록 하여 연속변수화된 3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셋째, 재난 관련 특성은 재난으로 인한 상황 및 인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우선, 상황에 대한 문항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산손실정도와 복구상태정도를 퍼센트(%)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재난에 대한 인식은 ‘재난 발생 시 자신이 할 수 있

는 일의 정도', '스스로 인식하는 재난에 대한 지식수준', '재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세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1)', '여(0)'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연령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종교는 '있음(1)'과 '없음(0)'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무학(1)'에서부터 '대학교 이상(5)'까지, 주관적 경제수준은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수준에 대해 '나쁘다(1)'에서 '좋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 (Versio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통계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재난 이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예측되는 변인이 범주변인인 경우에 범주변인과 연속적인 독립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이다. 여기서 다항이란 범주의 수가 세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항분포는 두 개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빈도 혹은 비율에 관한 이론적 확률 분포를 일컫고, 범주의 수가 세 개 이상이면 이항분포는 곧바로 다항분포로 확장된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118명(63.4%)으로 남성 68명(36.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50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가 41명(22.0%), 40대와 70대가 각 32명(17.2%)으로 고연령(elderly)층의 응답률이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0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가 144명(77.4%)으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2명(22.6%)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비교적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나쁘다 54명(29.0%), 비교적 좋다 47명(25.3%), 좋다 5명(2.7%) 순으로 나타났다.

3.2 재난 이후 신체적·정서적 상태와 관계, 재난관련 특성

재난을 경험한 이후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신체적·정서적 상태와 타인과의 관계, 재난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만점에 2.21점, 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은 4점 만점에 .6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정서증상은 14점 만점에 3.02점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문항은 모두 3점 만점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부부관계 변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8	36.6
	여자	118	63.4
연령	< 40	27	14.5
	40-49	32	17.2
	50-59	50	26.9
	60-69	41	22.0
	70-79	32	17.2
	80 ≤	4	2.2
학력	무학	26	14.0
	초등학교	50	26.9
	중학교	27	14.5
	고등학교	60	32.2
	대학교 이상	23	12.4
종교	있다	144	77.4
	없다	42	22.6
주관적 경제수준	나쁘다	54	29.0
	비교적 나쁘다	80	43.0
	비교적 좋다	47	25.3
	좋다	5	2.7

표 2. 재난이후 상태, 관계, 재난관련 특성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정서적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2.21	.83
	스트레스 수준	3.64	1.02
	알코올 의존	.63	1.09
	정서증상	3.02	3.26
타인과의 관계	자녀관계	2.01	.45
	친척관계	1.96	.46
	이웃관계	1.92	.58
재난관련 특성	재산손실	48.61	29.90
	복구상태	56.68	39.42
	능력발휘	2.73	1.26
	지식수준	2.76	1.15
	재난재발가능성	3.78	1.14

2.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척과의 관계가 1.96점, 이웃과의 관계가 1.92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련 특성은 48.61%가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하였고, 응답시점에서 약 56.68% 정도가 복구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식에 관한 세 가지 문항은 모두 5점 만점이며, 재난 발생 시 능력발휘는 2.73점, 지식수준은 2.76점, 재난재발 가능성은 3.78점으로 평균(2.5점)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3.3 재난으로 인한 부부관계변화

재난을 경험한 부부의 관계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186명 중 135명(72.6%)이 부부관계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51명(27.4%)의 부부는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37명(19.9%)은 관계가 악화되었고, 14명(7.5%)만이 오히려 관계가 향상

표 3. 부부관계의 변화여부

항 목	빈도(명)	비율(%)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37	19.9
부부관계가 변화하지 않았다	135	72.6
부부관계가 향상되었다	14	7.5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재난으로 인해 약 30%에 해당하는 부부가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향상되는 경우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3.4 재난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난 이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신체적·정서적 상태 및 타인과의 관계, 재난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때,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부부관계 변화에서 빈도(비율)가 가장 많았던 ‘변화하지 않음’을 선택하였다. 이는 기준범주의 사례수가 가장 많으면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범주들과 비교하는데 추정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cott, 2001: 317).

분석 결과, 자유도 34에서 Chi-Square 값 153.86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기저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종교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및 불안의 정서증상,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상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과 향상시키는 요인 간에는 상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데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선별되었으나 그 밖에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서증상, 복구상태 요인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odds가 92.8%(=100×(0.072-1))씩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odds는 62%(=100×(0.380-1))씩 감소한다. 또한 재난이후 피해에 대한 복구가 많이 진행될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odds는 2.2%(=100×(0.978-1))씩 감소하고, 종교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악화될 odds가 종교가 없을 경우에 비해 85.7%(=100×(0.143-1)) 감소한다. 반면 불안 및 우울관련 정서증상이 심할수록 부부관계 악화될 odds는 26.6%(=100×(1.266-1))씩 증가한다.

다음으로 부부관계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부부관계가 향상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부관계가 향상할 odds는 12,974.6%(=100×(130.746-1))씩 증가한다. 이는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부부

표 4.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구분		부부관계 악화			부부관계 향상		
		b	Wald	Exp(b)	b	Wald	Exp(b)
상 수		4.212			-9.547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373	0.218	0.689	2.089	1.541	8.079
	연령	-0.025	0.530	1.303	-0.079	1.288	0.924
	학력	0.265	0.518	1.303	-1.260	1.811	0.284
	종교	-1.945*	4.274	0.143	-1.826	0.592	0.161
신체적·정신적 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0.185	0.185	1.203	0.767	0.921	2.153
	주관적 건강상태	-0.968*	4.129	0.380	-1.084	1.600	0.338
	스트레스 수준	0.662	1.831	0.176	-0.875	0.965	0.417
	알코올 의존	-0.105	0.103	0.900	1.048	2.200	2.851
	정서증상	0.236*	4.631	1.266	-0.214	0.511	0.808
타인과의 관계	자녀관계	-2.638**	10.403	0.072	4.873**	7.657	130.746
	친척관계	-0.547	0.489	0.579	2.844	2.229	17.177
	이웃관계	-0.278	0.157	0.757	-0.131	0.006	0.877
재난관련 특성	재산손실	-0.016	1.799	0.984	0.005	0.061	1.005
	복구상태	-0.022*	5.711	0.978	-0.001	0.002	0.999
	능력발휘	-0.401	2.234	0.669	-0.768	2.293	0.464
	지식수준	0.273	0.960	1.314	0.320	0.377	1.377
	재난재발 가능성	0.522	2.854	1.686	0.422	0.574	1.526
- 2 Log likelihood					124.586		
Model Chi-square					153.866***		

* $p<0.05$, ** $p<0.01$, *** $p<0.001$

^{a)}기준범수 : 부부관계 변화없음

^{b)}더미변수 처리 : 성별 기준변수 -남성, 종교 기준변수- 있음.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서증상, 그리고 복구상태 요인은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난을 경험한 이후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경우가 감소하고 관계가 향상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재산손실이 많이 복구될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안 및 우울관련 정서증상이 심할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자연재난인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고흥 및 제주도과 인적재난으로 인한 기름유출사고로 고통을 겪은 충청남도 태안의 기혼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경험 이후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은 가족 내 부부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을 경험한 3쌍 중 약 1쌍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부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이 긍정적이라는 경험의 비율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부부관계는 재난 이후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이라는 외국의 선행연구결과(Cohan 등, 2002; Morrow 등, 1996; Aguirre, 1980)와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이라는 엄청난 사건 후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재난을 경험한 부부관계 변화에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관계 변화의 방향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 직후 부부관계에 대한 위기개입 전문상담과 함께 부부-자녀관계까지 포괄하는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재난으로 극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자녀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반응에도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이후 부부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재난 이후 경제적인 손실 및 복구 등 현실적인 문제와 개인상담에 집중되어 해결책을 모색해왔지만 향후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나 가족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이후 재난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도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된 연구결과(송현주, 2010; Boscarino 등, 2008)를 보면, 재난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은 주로 재난지역주민들의 심리적·정서적 개입이 많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안정도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더 나빠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피해부부에 대한 개입 시, 지역보건소 및 의료전문 자원봉사단을 연계함으로써 부부가 느끼는 주관적 신체 상태를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또는 우울감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고치 않은 재난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환경까지 변화시킨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하여 재난피해자들이 PTSD 등과 같은 급성질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한 이후 신속한 임상 개입은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정서의 불안정이 가져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코마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웃한 지역사회 간 부부 지지체계를 구축한다면 서로에게 집중된 관심과 갈등이 다른 지지체계를 통해 해소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난발생 이후 빠른 복구는 부부관계 악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는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이 빈번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재건비용 예산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과 함께 재난보험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피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복구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특정 연도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부부관계의 변화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횡단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언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단편적인 측면에서만 살펴, 보다 다양한 변화의 양상과 부부 각자의 이해와 해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간방재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재난을 경험한 지역의 부부관계에 관해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란 (2009)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와 대응,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 비교, **평화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153-176.
- 소방방재청 (2005) **방재 및 피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국립방재연구소.
- 송현주 (2010) 재난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한국심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1호, pp. 53-62.
- 정순돌 (2009)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재난현황과 인식, **한국방재학회지**, 제9권, 제1호, pp. 29-35.
- 중앙일보 (2011. 6. 1) 큰 일 겪어보니 영....” 日 ‘지진이흔’ 늘어.
- 중앙재난대책본부 (2003) **풍수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행정자치부.
-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빈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7호, pp. 139-149.
- Aguirre, B.E. (1980) The long term effects of major natural disasters on marriage and divorce: An ecological study,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5, pp. 298-307.
- Boscarino, J.A. and Adams, R.E. (2008) Overview of findings from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Outcome Study: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fter exposure to psychological trauma,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Vol. 10, No. 4, pp. 275-290.
- Cohan, C.L. and Cole, S.W. (2002) Life course transitions and natural disaster. Marriage, birth, and divorce following Hurricane Hugo,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6, pp. 14-25.
- Colarossi, L., Heyman, J., and Phillips, M. (2005) Social Workers' Experiences of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Symptom Typ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41, No. 2, pp. 185-198.
- Chung, S.D. and Kim, E.J. (2010)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A Comparative Study on Typhoon and Oil Spill Disaster,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43, No. 5, pp. 396-402.
- Davis, K.M. and Ender, M.G. (1999) The 1997 Red River Valley Flood: Impact on Marital Relationships, *Behavior Science Review*, Vol. 7, No. 2, pp. 181-188.
- Gortner, E. and Pennebaker, J.W. (2003) The Archival Anatomy of a Disaster: Media Coverage and Community-Wide Health Effects of the Texas A&M Bonfire Traged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2 No. 5, pp. 580-603.
- Kristi, K. (2007) A guide to Crisis Intervention(3rd Eds), Australia; Belmont, CA: Thomson/Brooks/Cole.
- Kwon, H.K., Rueter, M.A., Lee, M.S., Koh, S.J. and Ok, S.W.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Korean Economic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No. 2, pp. 316-325.
- Morrow, B.H. and Enarson, E. (1996) Hurricane Andrew through women's ey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Vol. 14, pp. 5-22.
- Mayfield, D., McLeod, G. and Hall, P. (1974) The CAG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New Alcoholism Screening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 pp. 1121-1123.
- Rodgers, J.L. (2004) Did divorces decline after the Oklahoma city bomb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No. 1, pp. 90-100.
- Scott M. (2001)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2nd Eds), Sage.
- Taylor, V. (1977) Good news about disaster, *Psychological Today*, Vol. 11, pp. 93-129.
- Vinokur, A.D., Price, R.H. and Caplan, R.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1, pp. 166-179.

◎ 논문접수일 : 11년 08월 30일
 ◎ 심사의뢰일 : 11년 09월 07일
 ◎ 심사완료일 : 11년 09월 26일